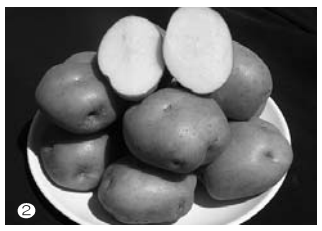
감자, 바르는 화장품으로 쓸 수 있다?

국산품종 자영 · 서홍 이용 핸드크림 등 개발 '눈길'

자영 감자 껍질 추출물 플로스타그란딘 억제 효과 서홍 껍질 추출물도 산화질소 억제 효과



❶보라감자(자영) ❷붉은 수피감자(서홍) ❸서홍 감자로 만든 핸드크림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보라색 감자 '자영'과 껍질이 빨간색인 일반 감자 '서홍'을 이용해 산업체에서 피부 진정과 보습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들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 화장품은 상품성이 있는 감자는 물론 판매가 어려운 못난이 감자까지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감자 재배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화장품 업체에서 자영 감자를 이용한 '수면팩(슬리핑팩)'과 서홍 감자를 이용한 '핸드크림 및 보디로션'을 개발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감자는 '비타민 시(C)의 보고'로 불릴 정도로 비타민 시(C)가 풍부해 예로부터 감자를 갈아 피부에 바르는 등 피부 보호를 위해 많이 사용돼 왔다.

특히 껍질과 속이 모두 보라색인 '자영'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43.7mg/100g로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비타민 시(C)도 일반 감자 보다 32% 많은 62.5mg/100g을 함유하고 있다.

이 자영감자의 껍질 추출물은 세포실험 결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염증 매개 물질인 '플로스타그란딘(PGE2)'을 76% 이상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흑갈색 색소인 '멜라닌'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주요 효소 '티로시나아제(Tyrosinase)'의 활성을 48% 가량 억제해 피부 미백에도 효과가 있다.

빨간색 껍질을 가지고 있는 서홍 감자의 껍질 추출물도 염증 매개 물질인 '산화질소(Nitric Oxide)'를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 감자를 원료로 한 '수면팩(슬리핑팩)'은 기다렸다가 씻거나 떼어낼 필요 없이 얼굴에 가볍게 바르고 자면 되는 제품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보호해 준다.

서홍 감자를 이용한 '핸드크림 및 보디로션'은 끈적거리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어 건조한 피부에 촉촉한 보습감을 준다.

이들 화장품에는 감자수, 감자즙, 감자추출물, 감자껍질추출물, 감자전분 등 주성분인 감자의 함량이 39% 가량 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자영 껍질 추출물 및 항염 조성물' 관련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앞으로 산업체 기술이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홍 껍질 추출물 및 항염 조성물'도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남정환 농업연구사는 "국내 육성 감자 품종들이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화 기초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감자의 기능성을 밝히는 연구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감자 재배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일 공사 창립 54주년을 맞아 나주 본사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기념식을 연 가운데 김춘진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식품유통공사, 창립 54주년 기념식

"변화 · 혁신 통한 새로운 반세기 준비"

김춘진 사장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 이끌어 가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일 공사 창립 54주년을 맞아 나주 본사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로 출범한 공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수출진흥, 식품산업육성 등 주요 사업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힘쓰고 있다.

김춘진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사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왔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사가 우리 농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공사는 올해는 '농수산식품산업 강국 실현으로 국민의 행복을 더하는 공사'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초중고교의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은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복지시설, 군급식 시범사업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디지털 유통의 대표모델로 자리 잡았다.

또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 설치를 위해 김춘진 사장이 직접 발로 뛰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부처 장관 등 대정부 관계자, 학계, 유관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공사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169개 농수산식품 협력기업과 함께 ESG경영을 선포한 이래 ESG 경영전략 수립, 이사회 내 ESG전문위원회 신설, ESG경영 전담부서 및 CEO자문위원회 운영 등 ESG 가치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공사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ESG경영 실천 방안으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확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직원에 대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올해의 aT인상 등 대내외 포상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윤상기자

청년농 비즈니스모델 개발 성과 · 방향 공유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개발 연구 성과 발표 우수사례 시상식도 열어 청년농 22명, 원장상 수상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달 30일 청년 농업인 '비즈니스모델' 개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달 30일 청년 농업인 '비즈니스모델' 개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농업인의 사업적 성장과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청년농업인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한 청년 농업인 22명에게 국립농업과학원장상을 수여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앞서 청년 농업인 비즈니스모델 개발 연구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을 위한 한 장으로 끝내는 농업비즈니스모델'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비즈니스모델 정의와 유형,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현장 지도안, 청년 농업인 22명의 비즈니스모델캔버스가 실려 있다.

누구나 책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캔버스, 비즈니스모델스토리, ERRC 기반 목표달성과 가치사슬 개선, PLC컨설팅 양식도 담았다.

책자는 청년 농업인, 농업인 단체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열람할 수 있다.

대상 수상자 유상옥 청년 농업인(경남 거제)은 "비즈니스모델 개발과정을 통해 올해 사업 모델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배운 지식을 활용해 내년 사업도 구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농업·농촌에 뛰어든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인, 창업을 꿈꾸는 초보 농업인 등이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9일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1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전기안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에너지안전 분야 최대 행사 중 하나다.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며, 국민 안심사회를 향한 실천의지를 모으는 자리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행사에는 유공자를 포함, 정부와 국회, 산업계 인사 90여 명이 참석하며, 축하 퍼포먼스와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중기 우수인력 확보 교육용 표준 교안 제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용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교안은 ▲중소기업의 개념과 중요성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청년 인식현황 ▲우수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고려사항 ▲중소기업 취약점과 극복방안 등 4개 파트로 구성돼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할만한 질의응답과 우수 중소기업 사례를 담고 있다.

제작된 표준교안은 중기중앙회 대학생 서포터즈 '행복한 중기씨' 홈페이지(blog.naver.com/smallgiantk)와 '참 괜찮은 중소기업'(gsmb.mss.go.kr)을 통해 공개되며 지자체, 학교, 중소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파일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백동욱 중기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으로 구인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교안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발굴과 구직자 연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금융 · 공공데이터 기반 맞춤 서비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미아데이터'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1일 고객의 금융·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 고객 맞춤 서비스 'NH마이데이터'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NH마이데이터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NH자산플러스 ▲금융플래너 ▲연말정산컨설팅 ▲내차관리 ▲맞춤정부혜택 까지 총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NH마이데이터 가입 고객은 한번의 가입으로 5가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NH쏠다치고 적금' 가입 시 0.1%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NH마이데이터 출시를 기념해 농협은행의 모바일 플랫폼인 'NH스마트뱅킹'과 '올원뱅크' 앱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총 12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사은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행복센터(☎1661-3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LX, 지속가능경영 유공 산업부장관상 '영예'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2021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이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왼쪽)과 사회가치실현처 송창용 과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공사)가 '2021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에서 사회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1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ESG·지속가능경영 분야 국내 유일·최대 정부 포상이며, LX공사는 창사 이래 최초 수상이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LX공사는 사회 부문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선도, 국토정보로 사회적가치 실현, 국민과 함께 공정·투명 경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LX공사는 '에너지절약추진위'를 운영하고 사옥 신축·보수 시 신재생설비 구축을 확대했으며, 업무용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천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과제인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교통·에너지·도시계획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드론을 활용한 재난재해 지역 피해면적 조사,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더 나아가 내·외부 취약요소 진단을 통해 윤리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청렴문화 확산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준법경영체계 고도화를 적극 이끌어 왔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